

◆소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사명은 동일하겠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마다 다른 공동체의 문화와 특성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바탕으로 삼일교회의 문화적 특성을 말한다면 삼일교회는 한마디로 ‘젊은교회’입니다. 그것은 단지 연령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와 선교를 통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정을 의미합니다. 이 교재는 각 주제를 통해 성도 여러분이 젊은 삼일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데 도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1과 화평케 하신 예수님 (엡 2:12-18)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들이었으며,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고 그 구원의 언약들에 대하여 아무런 분깃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멀리 있던 너희’ 라고 표현했습니다(13절). 이것은 특히 성소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이방인들은 지성소는커녕 유대인 여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보다 먼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히 10:19-22).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14절). 그리스도는 율법을 십자가 죽음으로 폐하시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율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적의를 없애준 것입니다.

2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딤후 3:15-17)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 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교훈하고 깨우쳐 주고 바르게 잡아 줍니다. 그렇게 영혼을 교육하여 그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목적하셨던 인격체로 성숙해 가도록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3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행 2:37-42)

베드로의 설교에 귀 기울였던 무리들은 성령의 감화로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이는 참된 믿음도 죄 사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도려내는 아픔 없이 구원의 달콤함을 맛볼 수 없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다음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세례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교회의 전반적인 타락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는 자들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을 함께 받아야 했습니다. 죄 사함의 복음은 결단코 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패역한 세대로부터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제 사도들의 지속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둘째는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로서 주의 성찬을 먹고 마시며 사랑을 나누는 삶입니다. 마지막은 기도였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성장시키는 중심된 요소입니다.

4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요 4:20-24)

예배라는 주제로 화제를 돌리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죄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지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배에 대한 지식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특정 장소, 그리심 산에만 계시는 분으로 이해했고, 그곳에서만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특정한 장소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며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과 자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선 예배자는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예배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라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과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 예배는 자기만족에 불과할 뿐 하나님께는 아무런 기쁨을 드리지 못합니다.

◆교재 설명

교육 간사는 디모데 교재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육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1과 화평케 하신 예수님

보혈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고 죄 사함을 얻을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때마다 보혈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특별한 절기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계기가 아니더라도 늘, 항상 보혈을 묵상하고 감사하십시오.

생각나눔 자신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1. 예수님을 당신만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2. 마태복음 16:13-17에는 예수님을 향한 두 부류의 고백이 나옵니다. 일반 사람들과 베드로의 고백은 각각 무엇이었으며, 왜 그런 고백의 차이는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14절

◆베드로: 16절

고백의 차이?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에 대한 표면적인 모습과 소문으로 예수님을 추측했지만(객관적),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한 인격적인 만남으로 그분의 실체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관적)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들의 전 생애의 방향과 높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진지하게 묻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지만, 참으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뿐만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 있는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신앙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강조하십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없거니와 참된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없습니다.

J.I. 패커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인격적인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분을 직접 만나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알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은 인본적 노력과 지성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며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물이 무엇인지 이름을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대상을 경험하여 그 대상의 속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분을 경험하여 아는 것, 즉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 깨달음이나 이성적 인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고, 듣고, 겪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성경의 문자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의 시작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오늘도 삶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가고 계십니다.

말씀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본문말씀: 에베소서 2:12-18

1.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12절)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엡 2:12)

12절에 ‘그 때에’ 라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이방인의 모습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선택하여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선민의 언약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언약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인 이방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태생적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기에 약속의 언약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세상적인 소망들은 많았을지는 모르지만, 참 소망은 없었으며, 세상에서 여러 신들을 섬겼지만, 참 하나님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포함하여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소외되었던 이방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아웃사이더에서 인사이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데렐라 스토리 정도와 비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이방인, 무할레, 언약외인, 나그네, 절망, 소외 등의 옛 호적은 말소되고 새로 만들어진 호적에는 하나님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친속, 성도, 살롬 등이 영구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나눔

당신의 인생을 BC와 AD로 나눈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BC는 예수님 탄생 이전의 약자, before Christ이고 AD는 라틴어의 Anno Domini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성도라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전(before)과 이후(after)의 삶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자', '다른 자', '구별된 자'를 의미합니다. 성도의 삶은 분명 그 삶의 질과 내용에 있어서 불신자들의 삶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전과 이후의 변화된 삶에 대한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2.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까?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엡 2:13)

13절은 이방인들을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라고 표현합니다. 전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상태에 대한 이런 반전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의 피를 말합니다.

전에 이방인이었던 우리 중 그리스도의 사랑에 무한히 빚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진한 사랑이 그분을 갈보리 산 위로 데려갔습니다. 그리스도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온갖 저주와 희롱을 당하셨고, 침 뱉음을 받았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못이나 예리한 동물의 뼈를 깎아 그것들을 꽂아 만든 채찍에 맞았습니다. 살점을 떼어내는 날카로운 채찍으로 온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의 중량에 견디지 못하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며 올라간 골고다의 언덕길은 피와 땀으로 얼룩졌습니다. 큰못이 손과 발에 박히는 순간은 지옥의 고통스러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모든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 13:1)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엡 5:2)

사랑은 오직 자기희생의 모판 위에서만 열매로 거두어집니다. 사랑을 언급하면서도 자기희생을 꺼리는 이유는 자기희생을 자기 소모로 그릇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희생은 물론 자기소모를 수반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자기 소모는 소모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 속에서 자라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서 생명을 소모하는 만큼 자식은 커 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을 쏟아내는 가운데 자녀는 사랑의 참의미를 비로소 터득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희생에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목상

히브리서 9:11-12절을 읽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 9:11,12)

히브리서의 중요한 핵심단어는 대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은 인간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범죄에 대한 징계를 상징하고 대체하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일 년에 딱 한 번 있는 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일은 온 민족이 죄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보편적으로 드러지는 속죄 제사는 개인적인 죄를 사함받기 위한 것이라면 속죄일에 드러지는 제사는 국가와 민족의 죄가 사함 받는 민족적 제사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본문에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과거의 덜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과거의 덜 좋은 일의 대제사장은 물론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제도로써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덜 좋은 일의 대제사장인가 하면, 그 제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한 것은 제물이 범죄자보다 가치가 작기 때문입니다. 남의 자동차를 고장 냈는데 자전거로 변상을 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우리 인간의 목숨을 대속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구약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온전한 제사를 상징하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가 오기까지 임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라면 제사를 수행할 성막이나 성전 같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본문에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합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이란 하늘 성전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제사의 중심은 제물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효과도 없이 반복되어야 했던 것은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온전한 성소에서 완전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제물이란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12절 후반 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제사 한 번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피로 세운 언약이며, 이 언약의 피는 모든 것을 정결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는 영원한 속죄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습니다. 미래의 죄까지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구속의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속죄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계시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는 다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국경일과 같습니다. 광복절은 일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삼일절은 기미 독립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것처럼 국경일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7대 절기 중 어떤 절기는 흥겹고 즐거운 절기도 있습니다. 나팔절과 같은 절기는 큰 기쁨을 주는 축제일입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려 지은 농사를 추수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절기입니다. 반면에 속죄일과 같은 절기는 엄숙하면서도 극도의 긴장이 있는 절기입니다.

성막의 구조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등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그 속에는 세 가지 증거물이 들어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싹난 지팡이,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입니다. 법궤 속에 담긴 세 가지 증거물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표적인 증거물입니다. 백성들은 성소 마당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백성들이 죄를 제물의 피로서 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등대를 간검하고 떡을 진설하는 일들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딱 한번 들어갑니다. 그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열납하면 살지만 거부하면 즉사하게 됩니다. 제사가 열납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성막을 뒤덮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제사를 드렸다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비록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시체를 끄집어내려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속죄일 제사를 드리러 지성소에 들어 갈 때는 항상 옷 술엔 방울을 달고 발목에 끈을 매고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밖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동안 숨죽이면서 기다립니다. 방울 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제사를 열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거부하여 대제사장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끈을 잡아 당겨서 시체는 끌어냅니다. 그런 후에 다른 대제사장을 선출하여 다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서 있어 속

최일은 긴장되는 절기입니다. 여섯 번째의 절기이지만 7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14-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엡 2:14-16)

14절에 인류를 둘로 나누어 놓았던 ‘중간에 막힌 담’과 ‘원수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떠한 상태였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율법으로 규정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과 이로 말미암은 적대감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기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둘이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한 새 사람’을 만드셔서 더 이상의 구별과 차별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4.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엡 2:17)

그리스도는 먼 데 있는 이방인들과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평화를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18절). 이제 더 이상 낯선 사람이거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19절).

묵상

사사기 6:22-24절 말씀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shalom’ (평안)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와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와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shalom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사 6:22-24)

■사사기 6:1-24 말씀 풀이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서 이루어진 40년의 평화는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써 깨어집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에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굴을 파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아무나 이스라엘을 넘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농사라도 지을라 치면 너나없이 군대를 이끌고 달려와서는 농사를 다 망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외적들이 가축까지 닥치는 대로 다 약탈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외적들의 약탈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본문은 그들을 ‘매뚜기 떼’에 비유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자기보다 약하다 싶으면 함부로 대하는 잔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에 빠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사사를 바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한 선지자를 보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책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학대에서 건져 주셨고,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그 백성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 역시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옛적에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것은 기드온만의 질문이 아니라,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따지듯 물어보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표징을 보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올려놓은 예물들을 모두 불태워 버렸고, 이것을 본 기드온은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임을 알고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기드온은 신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 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평화를 원하시는 분임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 집안 사람들은 그 단을 오랫동안 보존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전승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 - - -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시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징벌의 도구로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들판을 마구 쓸어버리고 수확한 것을 모두 탈취해 갔습니다. 곡식 한 톨, 양 한 마리 남겨 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 역시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나타난 여호와와 사자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옛적에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것은 기드온만의 질문이 아니라,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따지듯 물어보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도, 표징을 보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염소 새끼로 요리한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준비하여 상수리나무 아래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가져갑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자는 그것을 널찍한 바위 위에 올려놓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들고 있는 지팡이 끝으로 고기와 빵에 살며시 댑니다. 그 순간 바위에서 시뵈건 불이 나와서 고기와 빵을 삼 시간만에 태워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목도한 기드온이 너무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하나님의 사자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집니다.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이 기드온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굳어지고 심령이 떨립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22절). 어리석게도 감히 하나님의 사자를 의심하여 시험하였다는 후회가 생깁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게 된 사실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기드온은 거룩한 하나님을 뵈었으니 ‘이젠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귓전을 울립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23절) 이 말씀 한마디에 기드온의 심령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이란 실체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화가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괜히 의심까지 하며 하나님의 사자를 희롱하였던 기드온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한 선처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에 감격한 기드온은 힘을 얻어 그 자리에서 급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살롬’ 이라고 불렀습니다(24절). ‘여호와 살롬’ 이란 말은 ‘하나님은 평강’ 이라는 뜻으로써 ‘하나님은 평안의 주님이시다!(The Lord is Peace)’ 라는 간증입니다. 기드온이 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진짜 만나보니 하나님은 평안을 선포하시는 은혜의 대상이셨습니다. 평안의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이 그날 밤에 무슨 일을 했고, 그 이후 어떻게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떤 회사의 직원선발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죽어 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 당신의 생명을 구해 준 적이 있는 의사,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당신은 이중에서 단 한 명만을 차에 태울 수 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는가? 선택하고, 자기 의견을 서술하라.”

응시한 200여 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써낸 답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죠.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제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릴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의미 있는 문제를 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문제투성입니다. 학생 때는 성적이 최고의 문제요, 청년 시절에는 진로와 결혼이 문제입니다. 결혼 이후에는 자녀와 집이 문제입니다. 늙어서는 건강과 노후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 놓이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께 삶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고, 시편 55:22절에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우나나 찜질방에 가보면 종종 보는 문구가 있습니다. "귀중품은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귀중품은 맡겨야 합니다. 내 심령의 평안을 깨뜨리는 대상이 있다면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진로, 취직, 사업, 결혼, 자녀, 가족구원, 재정, 관계, 사역 등 모두 맡겨야 합니다. 이사야 26: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길 때 평강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6절에 보면, 감옥 속 쇠사슬에 매여 있는 베드로는 그곳에서 "누워 잤다"고 했습니다. 누워 잤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잠겨있는 감옥에서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잠자는 베드로의 평강은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입니다. 어떤 형편이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성령님의 임하심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두렵고 흔들리던 마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함께 소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로 구성된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나의 평안’ 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평안으로 네 가지 특성을 갖습니다. ①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좋을 때 생기고 나쁠 때 사라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②영적 평안입니다. ③내면적 평안입니다. ④완전한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나의 평안’ 과 달리,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①짧고 순간적입니다. ②물질적이고 육적입니다. ③외면적입니다. ④불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끼치시는 ‘나의 평안’ 은 영원하고 영적이며 내면적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위기가 닥쳐도 주님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마귀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위축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여기서 ‘담대하라’ 는 것은 인간적인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이 악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을 때 참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내가’ 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상을 대비하시면서 ‘예수님’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은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기셨다(neniko?a)’ 라는 단어의 시상은 완료입니다. 이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세상을 이기셨는데 그 결과가 지금도 남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그래서 지금 ‘이긴 자’ 로서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말합니다.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강한 자를 결박하셨기 때문에 그 종개들인 귀신들을 마음대로 쫓아내십니다 (마 12:29, 계 20:2).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힘입어 세상을 이깁니다. 그 이김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일 5:4).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속하게 만들며 예수님 안에 있게 하고 그 안에서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요일 4:4).

우리는 자신이 계획한 바가 무참하게 깨어질 때 절망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실패한 바로 그 때,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매 순간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에 순종하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말씀에 대한 순종인 동시에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실패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하기 때문에, 정말 인생의 전환기가 될 수 있는 실패를 맞이하고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항상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미국 시카고에 스페포드(Spafford)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명한 변호사이며 대학교수였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런 네 딸을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불행이 밀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의 대화재로 집과 재산이 모두 불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네 딸을 위로하기 위해 프랑스로 여행을 보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탔던 여객선 하브호가 영국 배와 충돌하여 승객 226명이 죽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고, 네 딸은 모두 익사하고 아내만 겨우 생명을 구했습니다(1873년12월22일 새벽2시).

스페포드는 곧 프랑스로 건너가 비통에 싸인 아내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가운데 함께 탔던 배가 전에 하브호가 침몰한 지점을 통과할 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딸들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절망적인 슬픔 속에서도 남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들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와 얼마 동안 헤어져 있는 것뿐이에요.” 스페포드는 이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극의 바다에서 시 한편을 지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1절 :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제 영혼은 평안합니다

한 병사가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장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회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때마침 크리스천 군의관이 그 젊은 병사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형제여!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구려. 이 수술의 성공 가능성은 1%라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 그런데 이 병사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장 수술을 시작하세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제 영혼은 평안합니다. 만약 수술이 성공하면, 고향에 계신 제 어머니께로 가게 될 것이고,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486장, 1절)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적용

◆당신이 느끼는 평안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지속적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은혜공감 그 은혜는 넓고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환경이나 감정의 문제이기 이전에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은 바로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15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물질 명예 권세 등 헛된 것들이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물질 명예 권세 등에 의해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을 보면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죄를 짓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평안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록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어진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한마디로 마음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곧 항상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평안은 가진 것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향하신 주님의 방법과 계획을 믿음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고] 1과 기도 예문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 관계없이 늘 평안을 누리길 원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이 가로막힌 흥해 앞에 서 있을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풀 한 포기 없는 신 광야에 거할 때도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그 무엇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상심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삶도, 삼일교회로 저를 이끄신 것도 모두 주님의 뜻이 있기에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인생의 배경으로 삼아 영원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더욱 빛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성경을 읽읍시다. 처음에 성경이 쓰여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를 사로잡고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도록 아니 처음에 의도된 대로 성경말씀에 사로잡힌 우리를 통해 세상이 흔들리도록 성경을 읽읍시다.

생각나눔 자신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시]

“계시”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계시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는 크게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로 나뉩니다. 일반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근거하여 모든 인간에게 개방된 계시를 말하며, 특별계시는 일반계시와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주도된 직접적인 계시를 말합니다.

"계시(Revelation)"라는 단어는 단순히 드러내는 것(revealing)을 의미합니다.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에 적용합니다. 계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 것도 알 수 없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셔서,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계시'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는 '베일을 벗기다', '덮개를 열다', '드러내 보인다'란 뜻의 헬라어 동사 '아포칼립토'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따라서 '계시'란 유한한 인간 스스로의 지식과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1. 계시에 대한 일반적 고찰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한다. 만일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참 종교는 없었을 것이다. 또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알리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지식도 가질 수 없으며 인간 그대로 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을 것이다. 이 계시는 두 종류가 있다.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로 구별할 수 있다.

물론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은 계시를 믿지 않는다. 범신론자들은 그들의 사상체계 속에 계시를 허용하지는 않지만 가끔 계시에 대하여 언급하기는 한다. 자연신론자들은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인정하나, 성경에 나타난 특별계시의 필연성과 실재성, 심지어는 특별계시 가능성까지도 부인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모두 믿는다.

2. 일반계시

하나님의 일반계시는 시간상으로 특별계시보다 앞선다. 일반계시는 인간에게 구술적 전달 형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 사건과 자연 세력과 자연 법칙을 통하여 오는 것이다. 성경은 일반계시에 대하여 여러 구절을 통해 언급하고 있다(시 19:1, 사 40:25, 롬 1:19, 20, 2:14, 15).

1) 일반계시와 불충분성

펠라기우스파와 합리주의자들과 자연신론자들은 일반계시만으로 현재 인간의 요구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반하여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는 일반계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본다.

이 일반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남아있는 죄의 암영에 의해 희미하게 되고 말았다. 창조주의 숨씨가 완전히 지워진 것이 아니고 흐려지고 희미해진 것이다. 일반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영적인 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전달하여 주지 못하므로 인간이 영원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제공하여 주지 못한다. 종교를 순수하게 하나의 자연적 근거에만 세우려는 자들의 현재의 종교적 혼란이 바로 일반계시의 불충분성을 분명하게 증명하여 준다.

일반계시가 일반적 종교에도 합당한 기초를 제공하여 주지 못하므로 참 종교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심지어 이방 민족들은 어떤 가상적 특별 계시에 호소한다. 결국 일반계시로서는 죄인들의 영적인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일반계시는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능력에 관한 다소의 지식을 전달하여 주지만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지 못한다.

2) 일반계시의 가치

그러나 위에 언급한 내용이 일반계시가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니다. 일반계시는 아직도 이교의 진정한 확립요소를 설명해 주는데 이 계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후손임을 깨닫고(행 17:28),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행 17:27),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고(롬 1:19, 20),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게 되었다(롬 2:14). 또 그들은 죄와 무지의 암흑 속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곡해하지만 말씀의 조명(요 1:9)과 성령의 일반적 작용(창 6:3)에는 참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계시는 그의 특별계시의 배경을 형성해 주므로 특별계시는 일반계시 없이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과학과 역사는 성경기록에 대해 빛을 던져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3. 특별계시

자연 속에 나타난 일반 계시와 함께 우리는 성서에서 구체화 되어 있는 특별계시를 받아들인다. 성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책인데, 이 계시 속에는 사실과 말씀이 병행하여 말씀은 사실을 해석하고 사실을 말씀에게 본질을 제공해 준다.

1) 특별계시의 필요성

특별계시는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숨씨는 희미해지고 부패하게 되었다. 인간은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고통을 받게 되어 과오와 불신앙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고 우매함과 고집으로 계시의 본래 흔적까지도 명확히 알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보다 깊은 계시를 이해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연의 진리를 재해석하고 구속의 새로운 계시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인간의 마음을 조명하여 오류의 구덩이에서 벗어 나도록 해야만 하셨다.

2) 특별계시의 방법

하나님께서서는 특별계시 혹은 초자연적 계시를 주시되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다.

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자신이 존재하심을 불과 연기의 구름 속(출 3:2, 33:9, 시 78:14, 99:7)에서와 폭풍(욥 38:1, 시 18:10-16)속에서와 세미한 음성(왕상 19:12) 속에서 나타내 보여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임재)의 증거인 것이다. 구약에 보면 삼위 중 제 2위 되신 여호와와 사자의 현현이 두드러 진다(창 16:13, 31:11, 출 23:20-23, 말3:1). 인간들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격적 현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이르러 최절정을 달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 직접적 전달

하나님은 가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신 5:4)처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의 내적 작용으로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다(벧전 1:11). 하나님은 꿈과 환상의 방법과 우림과 둠뎀의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민 12:6, 27:21, 사 6:).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나타나셨으며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계기 전달의 기관이 되었다(요 14:26, 고전 2:12,13, 살전 2:13).

다. 이적

성경에 나타난 이적은 인간에게 놀라움만 주는 하나님의 단순한 경이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필연적인 한 방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이적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표현이며 자신의 특별한 임재(나타나심)의 증표이며 때로는 영적 진리를 상징하며, 다가 올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적 능력의 징조인 것이다. 이적 중에 최대의 이적은 성육신(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신 사건이다. 하나님의 창조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가며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게 된 것이다(딤후 3:16, 계 21:5)

3) 특별게시의 특성

이 하나님의 특별게시는 구원의 계시인데 죄인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에 구원의 계획과 이 구원계획의 실현 방법을 보여주는 계시이다. 이 특별게시아 말로 인간의 마음을 조명하여 그의 뜻을 선한 데로 이끌어 주며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주고 그에게 하늘나라의 집을 준비케 하는 계시인 것이다. 특별게시는 우리에게 구속의 메시지를 전해 줄 뿐 아니라 구 속의 사건을 알게 해 준다. 우리를 지식으로 부하게 할 뿐 아니라 죄인을 성도로 변하게 하며 우리 생활을 변화 시켜 준다. 그리고 이 계시는 분명히 진보적이다. 속죄의 위대한 진리가 처음에는 희미하게 나타나고 점진적으로 분명해지고 마침내 신약에 와서 이 진리의 충족함과 아름다움이 현저해진다.

2. 일반게시와 특별게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게시: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롬 1:19-20)

일반게시(자연게시)란 창조를 통해 피조물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피조물에 자신의 표시, 자신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지음을 받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롬 1:20)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롬 1:22, 32), 세계역사(행 17:22-31)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① 자연 - 우주 천체의 질서 정연한 운행, 계절의 변화, 각종 생명들의 탄생과 성장
- ② 마음 - 선을 지향하고 악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는 양심
- ③ 역사 -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진행되었던 역사속의 여러 사건들

◆특별게시:

특별게시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들의 구주로 나타내시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일반게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나 일반게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관한 지식을 제공할 뿐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전혀 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계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일반게시만으로는 참 하나님과 자신의 죄악의 심각성,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게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게시는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계시를 말합니다.

죄로 타락한 사람은 자연, 역사, 양심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직접 알려 주시는 특별게시의 방법을 쓰셨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구원의 진리를 보여 주시는 특별게시의 방법은 계시를 통해(단 8:13; 10:5; 슥 1:9; 6:5; 행 7:53; 갈 3:19), 꿈과 환상을 통해(민 12:6; 삼상 28:6; 욥 2:28; 창 40:5; 사

7:13; 단 1:17; 암 7:1-9:10), 직접적인 음성으로(창 2:16; 출 19:9; 삼상 3:4), 무생물들을 통해 임재하심으로(시 99:1; 출 3:2; 시 78:14; 욥 38:1),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히 1:1).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는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사역과 생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결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히 1:2; 요 1:18; 14:7, 9-11). 그리고 이러한 특별계시를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요 20:31; 딤후 3:15-17). 특별계시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셔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3. 성경은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중 어느 계시에 속할까요?

성경은 특별계시입니다.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완성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별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특별계시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을 글로 보존하여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은 특별계시를 모두 담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계시가 곧 성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특별계시를 모아서 성경으로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특별계시와 성경은 하나입니다. 다른 특별계시는 우리가 알 길이 없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특별계시를 성경을 통해 다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다 기록해서 보존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읽고서 믿음을 가지고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목적하신 것입니다.

[참고] 예수의 관한 기록,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https://youtu.be/gkbScI2F1-4>

말씀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본문말씀: 디모데 후서 3:15-17

1. 성경이 말씀하는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15절, 참조 요한복음 5:39)

[참고 사항]

아래 말씀에 나오는 ‘성경’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을 뜻하는가, 아니면 신약 성경의 일부 문헌을 포함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있다. 구약 성경을 뜻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인 견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곧 여기서 말하는 ‘구약 성경’은 개신교에서 이해하고 있는 오늘날의 구약 성경과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개신교는 루터의 결정에 따라 구약 39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사용된 성경은 희랍어로 번역된 ‘70인 역’이다. 여기에 외경이라 하는 15권이 더 포함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긴 책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계시한 책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20:30-31)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일5:13)

2.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서로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향하여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즉 구속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서 각기 모습을 다르게 나타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신약에서는 세계를 새롭게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거나 또는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복음과 약속을 믿거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은 예언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구약의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의 새 언약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 5:17)

율법은 바로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며, 선지자는 선지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 성취시키려 오신 분이며, 완성케 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막 12:30~31, 눅 10:27)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롬 13:8)

기존의 율법을 과감히 재해석하여 그 내면의 중요성을 "사랑"이라 강조함으로써 전혀 다른 율법관을 말씀하셨고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계명이 되었습니다.

나눔

큰맘 먹고 성경통독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구약성경은 내용도 길고 어려워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을 읽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구약성경의 내용에서 '예수님 찾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나 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표[豫表] : 예언 따위를 미리 보여 주는 조짐.

구약은 인간의 타락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고 세상 나라가 시작됨에 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들고 회복해 나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약의 메시지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럼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이 존재하는 것이며, 구약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나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나 사건으로는 유월절 어린양의 피, 성막 제사법으로 십자가의 대속, 광야의 늦뱀 사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 노아의 방주, 모세, 요셉, 엘리야, 다윗, 요나 등 매우 많이 있는데 가장 먼저 창세기 3:15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①여자의 후손 -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②머리를 상하게 함 -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심

③발꿈치를 상하게 함 -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인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앞으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구약은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창세기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성취

- 이스라엘에서 탄생 : 민 24:17

- 다윗의 가문, 유다 족속에서 탄생 : 창 49:10, 사 11:1

- 베들레헴에서 탄생 : 미 5:2

- 처녀에게서 탄생(임마누엘) : 사 7:14

- 메시아는 하나님으로 오심 : 사 9:6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예언과 성취

- 애굽에서의 생활 : 호 11:1
- 고난의 피로 죄를 대속하심 : 사 53:4-6
- 나귀타고 예루살렘 입성 : 속 9:9
-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움 : 시 69:21
- 뼈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 민 9:12, 시 34:20
- 옷을 제비 뽑아 나눔 : 시 22:18
-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 시 22:1
-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심 : 시 16:10

●그 외(구약 39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나 말씀들도 매우 많다.)

- 모세가 뿔뿔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뿔뿔에게 물린 자가 뿔뿔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민 21:9)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마 12:39) 요나는 삼 일 낮과 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출 12:23)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눅 24:44)

3.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16절. 참조 베드로후서 1:21)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딤후 3:16)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벧후 1:21)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는 말은 성경의 이중적인 저작권을 암시합니다. 즉 원저자인 성령께서 영감을 통해서 성경 기록자(약 40여명)에게 오류가 없는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류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his(그의)+story(이야기)=history(하나님의 이야기). 또한 성경을 "하나님의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한 책으로 되어 있으나 실상은 66권이 한 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모세 오경이 쓰여진 B.C. 1600년경으로부터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가 쓰여진 B.C. 420년경 사이에 쓰여

진 것입니다. 신약은 마태복음이 기록된 주후 38년경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주후 96년 사이에 쓰인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농부, 어부, 왕, 법률가, 의사, 정치가 등 각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바울은 감옥에서, 요한은 유배지 밧모섬에서 성경의 저자들은 각기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교육수준, 같은 언어, 동일 문화권의 사람들이 아니고 엄청나게 다른 교육수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세 대륙(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걸쳐, 세 가지의 다른 언어(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일관성과 그 주제의 통일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연이나 조작이라고는 볼 수 없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통일성이 바로 성경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하게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당신의 뜻이 문자로 기록되는데 있어 어떠한 인간적인 모순이나 오류가 전혀 개재되지 않도록 특별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 5:18)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였고, (요10:35)에서는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의 박해와 조소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경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우리시대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 전해져 왔습니다. AD 30년경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성경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마음먹고 끈질기고 잔인하게 성경 박멸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버린 성경의 잔재 위에 승리의 탑을 세우고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진멸되었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1199년에는 교황 이노센트 3세는 '모든 성경을 불살라 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앞으로 100년 이내에 이 땅에는 성경이 한 권도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50년 후에 그가 만든 출판사에서 성경이 인쇄되기 시작했고, 200년 후 그의 집에 프랑스 성서공회가 세워졌습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는 "성경은 내버린 책이다." 라고 말했으며, 미국의 회의주의자 잉거솔은 "이제 10년만 지나면 성경을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며 장담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그렇듯 학대 받고 불살라 버렸던 그 성경은 4년이 채 되기 전에 다시 해방되어 프랑스 사회의 무질서를 바로 잡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창세기 저자는 누구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창세기만 아니라 구약의 첫 다섯 책의 저자가 모세라는 것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입장이다. 물론 19세기에 와서 창세기의 모세 저작설을 부인하는 성경 비평주의 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벨하우젠(J. Wellhausen) 같은 이는 구약의 첫 다섯 책이 주전 598-539년 바벨론 포로 후기에 창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창세기와 다른 네 책들이 모세가 썼다는

증거는 충분하다.

예를 들어 고고학자들은 오경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정확하며 문학적 형식 역시 후대의 것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특별히 유대적인 전통은 오경의 모세 저작에 의심이 없으며 히브리 서기관 에스라(주전 450년경)가 그것들의 최종 형태로 구약을 수집했다고 한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역사적인 사실들과 율법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출 24:4; 34:27).

또 여호수아 23:6에서는 오경을 모세의 율법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구약의 다른 책들도 같은 입장이다(왕상 2:3; 왕하 14:6; 대상 15:13; 대하 8:13; 25:4; 에 3:2; 느 8:1; 단 9:11; 말 4:4). 그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이런 초기 책들의 저자로 모세를 인증하셨다. 예수님은 신명기 24:1-4을 모세의 명령으로(마 19:7; 막 10:3) 인정하셨고 모세를 율법의 수여자로 그리고 믿을 바 진리를 기록한 자로 말씀하셨다(요 7:19; 5:45).(1)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의 첫 두 장을 창조의 사건들에 대한 목격자의 설명으로 해석하는데 있다. 그러나 어떻게 모세가 또는 어느 인간이 그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에 사건을 마치 하나의 목격자인 것처럼 쓸 수 있겠는가?

창조 때는 어느 사람도 그 사건들을 보지 못했다. 그 때에는 하나님만 계셨고 하나님만이 창조자로 창조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셨다. 창조의 목격자는 하나님뿐이시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기적적으로 친히 돌비에 써 주신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출 34:28). 구약성경의 저자들은 선지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셨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서두를 시작함으로써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분명히 하였다(렘 1:9; 왕하 9:12; 렘 5:22; 7:30; 8:13, 17; 9:3, 23; 21:7; 27:15; 51:57).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출 6:28; 9:12; 33:9, 11; 민 3:1). 따라서 창조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의 방법으로 모세에게 전해 주셨을 것이다.(2)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 말씀들을 기록한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창세기의 창조 사건에 대한 기록을 후대의 모세가 목격자처럼 기록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4.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16b-17)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b-17)

사람을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좋은 교재는 없습니다. 성경으로 교육해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악삭빠른 악마를 생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삶과 신앙교육 관련 교재 중에서 최고의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105 인생의 등불인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횃불이나 등잔불과도 같습니다. 밤의 횃불이나 등잔불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가파른 언덕에서 구르는 것을 방지해 줄 뿐 아니라 위험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여정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자로 삼는 사람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행로를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우리들의 길이 복잡하고 험하고 어두울수록 더더욱 등과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앞길을 알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어두움의 연속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지치게 될지, 우리를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계곡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탄의 간교한 율가미가 어디에 숨겨져 있으며, 어떤 악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불과 빛이 되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백(변호경) : 저는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시기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 거듭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제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루하루의 삶을 위로와 격려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언제 이 어두운 터널이 끝이 날까?’ 라는 두려움으로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항상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시편 119:9,11 성도에게 승리를 주는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 119:9,11)

사람은 누구나 깨끗한 것을 다 좋아합니다. 집도 깨끗해야 좋고 옷도, 음식도, 외모도 깨끗해야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깨끗해야 될 것은 행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벽으로 인해, 어떤 사람은 술로 인해,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인해 행실이 깨끗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깨끗한 행실은 말씀을 지킬 때에 가능합니다.

또한 주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속에 두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특별한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유혹이나 죄의 대상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적지 않은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유혹 없이 살수는 없습니다. 유혹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유혹을 이기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저기서 유혹하는 그 많은 유혹의 대상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마태·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다. 이점을 우리는 우리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면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최악 된 세상에서 성도가 스스로 승리할 수 없기에 말씀을 따라 죄를 이겨야 합니다. 악한 세력이 청년의 행실을 더럽히려 하고, 범죄의 유혹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성도가 승리하기 위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 이상은 거울을 봅니다. 거울은 왜 보는 걸까요? 단지 예쁘고 잘난 모습을 보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거울은 오히려 잘못된 흠을 고치고,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거울입니다. 말씀은 모습도 고치고 부패한 마음도 치료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17 마귀를 이기는 공격용 무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엡 6:17)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다섯 가지가 모두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면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의 유혹과 함정, 이 시대의 난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전사만이 이 시대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성도는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면 불이 붙습니다. 불붙는 가슴이 됩니다. 불붙는 가슴을 가진 성도야말로 바로 마귀를 벌벌 떨게 만드는 성령의 검으로 무장된 성도입니다. 불이 붙은 말씀을 붙들면, 새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체험을 합니다. 흐트러진 모습을 벗을 수 있습니다. 마귀를 무찌르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거듭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조명된 하나님의 말씀은 날이 선 검이며,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절대적인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주된 무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세 번 시험할 때에 예수께서는 매번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을 이기셨습니다(마 4장; 신8:3; 6:16;

6:13).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을 이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이 전투에서 우리를 지키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의 모든 공격을 피할 길이 적혀 있고, 완전히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적혀 있는 지도를 주셨습니다. 생명과 승리로 인도하는 지도,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목상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이전에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각자를 향한 특별게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단어 “하나님의 감동”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어떤 의미일까요?(참조. 히브리서 4:12)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 (고후2:14,15)를 발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참조. 욥기 23:12)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란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데오프뉴스토스(theopneustos)는 데오스(theos, 하나님)와 프네오(pneo, 숨쉬다)의 합성어입니다. 이 용어는 신약성경에 단 1회 사용되며, 그 의미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생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흠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창 2:7).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겔 37:1-14).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진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며 숨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inspiration)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 4:12)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한다는 말이 뜻하는 바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

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후 2:14,15)

사람들은 꽃을 좋아합니다. 꽃의 아름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꽃의 향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꽃에 끌립니다. 하지만 꽃에만 향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매력적인 사람에게도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의 인품이 풍기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도 좋은 향기가 나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풍겨나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김치를 먹으면 김치 냄새가 풍기고, 불고기를 먹으면 불고기 냄새가 풍겨나듯이, 성경말씀을 먹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 23:12)

사람은 일정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매일 먹는 음식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한 끼라도 먹지 않으면 배고픔 때문에 무척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한 끼라도 섭취하지 않으면 영적인 배고픔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요?

5. 말씀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신명기 17:19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호수아 1: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사람의 인체는 이상하게도 가만히 쉬고 있으면 약해집니다. 비만증에 걸리고, 신경이 둔탁해집니다. 특별히 운동이 없으면 성인병에도 걸리기 쉬워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신경통 등의 병에 걸리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마라톤 하는 사람은 절대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번 뛰기 시작하면 여러 시간 동안 땀을 비오듯 흘리며 달려갑니다. 그러면 인간의 체내에 있던 악한 병균이라든지 그 외에 좋지 않는 불순물이 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약하지 않고 건강해지는 비결은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부패한 곳에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일

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선입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말씀에 순종하면 겪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손해 등이 순종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이나 사람들의 기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 그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전하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신앙의 진수를 봅니다. 마리아의 고백에는 어떤 핑계도, 중간 지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능력의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람은 그것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했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때로 전혀 합리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말씀이라도 마리아처럼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조롱과 불이익에도 아랑곳없이 하나님을 우직하게 따르기를 결심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무엇이든 하고 어디에든 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서라시면 서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단순한 삶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순해지십시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십시오.

[참고] 예화

머리 위로 쏟아지는 불볕더위가 한창인 어느 여름날, 주인과 하인이 길을 가다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 보니 금이 가득한 것이 아닙니까! 뜻밖의 횡재를 한 주인은 신이 나서 하인에게 당장 그 상자를 가져다 자기 집의 창고에 넣어 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자를 짊어지고 가야 할 하인에게 뜨거운 여름날에 상자의 무게는 어떨까요? 정말 죽을 맛일 것입니다. 정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상자를 발견한 주인이 하인에게 “자네의 집으로 가져가 살림에 보태 쓰게.”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인에게 그 상자는 무거울까요? 실제 무게는 여전하겠지만, 하인의 어깨에 눌리는 무게감은 가벼운 새털 같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는가? 신나고 가볍게 느껴지는가?’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금 상자를 짊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행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고 확신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며 인생이 달라집니다.

적용

- ◆당신이 말씀생활을 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 ◆당신은 날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공감 그 은혜는 넓고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영의 양식인 말씀을 섭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온전한 말씀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어쩌면 그 삶은 아직 영이 아닌 육에 가까운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호흡)으로 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섭취함으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8

[참고] 2과 기도 예문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인생을 던지며 말씀의 지배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적재적소에 합당한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의지하여 삶의 현장에서 그물을 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에게 머무르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어 삶의 난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으로 푸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에 얼마나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지 하나님은 모든 믿는 형제자매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귀히 여길 때에 능력이 임합니다.

생각나눔 자신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1. 당신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또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2. 다음 말씀들을 찾아보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된 성전이란 건물이 아니라 성도 자신입니다. 마치 옛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메고 어디로 가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성도는 성전이라는 특정 공간을 뛰어넘어 그 자신이 움직이는 성전(portable temple)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따라서 교회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20-22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에 나오는 성전은 교회의 건물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집단, 즉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 하면 건물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의 개념이기보다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뜻합니다. 교회란 단어는 신약성경에 112번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90번 정도가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모퉁잇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은 이 건물의 기초이며 서로 연결되게 하며 함께 지어져 가게 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함께,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에 의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가족이 된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써 서로의 삶을 통하여 엮여져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교회”에 관한 성경의 용어들을 살펴보면, 구약은 “불러모으다”라는 뜻의 동사 “카할(회중, 집회)”이라는 단어가, 신약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의 동사 “에클레시아”가 사용됩니다. 교회란 한 마디로 부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 말고도,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와 유기적 연합을 강조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이전과는 달리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그 근거를 둔 구원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신약에서 교회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 지체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한 건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하는 양떼, 촛대 등입니다.

말씀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본문말씀: 사도행전 2:37-42

1. 교회는 성도들, 곧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행 2:38)

오순절의 성령을 받고 행해진 베드로의 선포는 담대함과 권위가 배어있었을 뿐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안겨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사실은,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의 그들의 깨닫지 못한 심령의 상태와 매우 잘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갈 때에야,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었던 자신의 존재와 상태를 직시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향한 자신들의 무지와 죄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37절).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두 개의 명령 동사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개하라”입니다. 회개란 길을 바꾸라는 뜻으로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둘째,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으라”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례란 세례의 형식이 아닌 세례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세례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 옛사람은 죽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럼으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표징인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세례(Baptism)

물속에 들어가는(물 뿌림) 의식을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상징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바티스마’ (baptisma)이며 이는 ‘잠그다’ (왕하 5:14; 시 68:23) ‘씻는다’ (막 7:4; 눅 11:38; 딤후 3:5), 비유적으로 쓰여 ‘온몸에 충만시킨다’ (마 3:11)는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물 뿌림)을 통해 옛 사람이 죽고, 죄를 씻고 물에서 나옴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부활,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으로 접목되었다는 것, 은혜의 언약의 모든 유익에 성도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도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표적이요, 인(印)인 것입니다.

2. 당신은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조. 고린도전서 12: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 12:3)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증거로서, 어떤 신비한 이적을 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고백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 고백은 입술만의 메마른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요 참 하나님이심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롬10:10)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글성경을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주체가 되어 자신이 믿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원문성경은 다릅니다. 사람이 능동이 아닌 수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의 원어는 <피스투오 (pisteuvw)>인데 시제가 현재 수동태입니다. ‘시인하여’의 원어는 <호몰로게오 (homologeō)>인데 역시 시제가 현재 수동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믿어지는 상태, 시인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고 시인하는 것은 수동태이며, 사람이 주체가 아닙니다. 자신이 믿고 시인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체가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8,9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그분의 외적인 증거

는 우리의 성품과 행동 속에 존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을 때 나타나는 주된 성품 중에서 9가지를 열거하면서(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 라고 불렀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열매들이 익어 가도록 도우십니다(갈라디아서 5:22-23).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정원사에, 우리를 그분의 정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원이 해로운 잡초들로 무성하다면, 정원사가 부재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열매가 보인다면, 그것들을 자라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마 7:16).

[참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신약성경의 주된 입장은 누구나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그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내주는 성령 충만(Full of the Holy Spirit)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내주 현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현상은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 시에 혹은 성령이 내주하신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현상은 여러 성령의 은사를 수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그 밖에도 행 4:23-27; 10:34-48 참고). 성령 세례는 성도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받는 것으로 단회적인 것이라면(고전 12:13) 성령의 충만은 성도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충만이란 표현은 ‘무엇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성령으로 완전히 다스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 즉 성령의 감화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삶이 성도가 제어할 수 없는 무아지경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지만서도 인격체이신 분이므로 성도 안에 인격적으로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성도가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때만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스데반이나 바나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품을 묘사할 때도 쓰였습니다(행 6:10; 7:55; 11:24).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자신을 바로 알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물에 대한 바른 이해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였습니다(엡 5:18).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성도가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골 3:5). 성령 충만을 받으라(be filled by Spirit-NIV)고 표현된 헬라어(플레루스테- plerouste)는 현재 수동 명령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계속적인 지배와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형은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니라 성도의 능동적인 책임이 있음을 뜻합니다. 또한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계속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일부 소수 정예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령이 성도를 충만케 하는 것’ (NEB)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어느 것도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란 감정적인 황홀경을 말하기보다는 성령을 좇아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갈 5:16, 25).

3. 교회가 지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39-41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행 2:39-41)

교회의 존재목적은 다섯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교회의 5대 사명’ 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입니다. 이 중에서 본문은 선교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선교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본문의 ‘증인’ 은 원어상 ‘순교자’ 를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정신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나눔

당신은 평소 선교의 사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교를 통한 특별한 유익이나 은혜의 체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4. 베드로가 설교 한 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숫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행4:4)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행 4:4)

3천, 5천이 주는 도전은?

A형 : 복음은 전파할 때 역사한다.

여기서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은 전도자 베드로를 신뢰했다기보다는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믿고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며 전파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파에 대한

큰 영적 원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있어서 너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위축되어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전도자가 훌륭하고 인격과 영적 자질이 뛰어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둠의 세력인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자신을 점검하는 것보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 우선되고 강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혁 신앙의 원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전도자들에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책하고 거기에 붙들리게 해서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남에게 전한단 말인가’ 하며 복음 전파의 담력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속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복음을 믿어야 되고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자가 부족해서 전하지 못하는 것보다 부족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전파할 때만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롬 10:14)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 4:2)

B형 :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기념교회 이재철목사 해석] 사도행전이라는 전체 틀을 가지고 본문을 조명함.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인구 밀도는 약 8만 명으로 작은 성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8만 명이라는 수는 남녀노소를 말합니다. 또한 8만 명은 추측으로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수입니다. 그런데 무려 8천명(행 2:41, 4:4)이나 되는 사람이 일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8천명은 모두 남자 장정들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사람들은 사람 수를 계산할 때 여자와 아이들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 가정의 종교는 가정의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8천명의 남자 장정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8천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대가족 제도였으므로 <남편+아내+양가부모님 1명+평균자녀2명=5명>로 단순히 계산해보면 무려 4만 명(5X8=4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인구의 약 50%, 즉 한 사람 건너 그리스도인이 되는 엄청난 대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걷고자 했던 4만 명의 대군중은 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로부터 30년이 지나서 3차례의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도 바울을 영접했던 그리스도인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숨이 위태롭지만 발 벗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처에는 예수님의 대적자들뿐이었습니다. 대체 그들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8장 1절이 증언해주고 있는 스테반의 순교로 인한 박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 도시의 인구 절반이 일거에 그 도시를 떠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단 하나의 이유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겠다고 나선 그들이 30년이 지나 그 실체를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행위, 즉 3천 명이 앞 다투어 세례를 받고 5천명이 믿는 자의 대열에 합류하였던 사실은 바로 궁중심리에 의한 것이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들은 분위기와 감정에 휩싸여서 세례의 형식만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의 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소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 성경은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명이나 더 했다고 해서 그 큰 군중이 모두 주님의 제자거나 신자라는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단순히 그냥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두고 봐야 합니다. 신앙의 동기는 집단적일 수 있으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의 질과 수준은 철저하게 개인의 몫입니다. 믿음의 패션도 아닙니다. 믿음은 이벤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처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예배당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어야 합니다. 유럽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성당들이 곳곳에 즐비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더 이상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당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유럽의 가톨릭과 개신교는 벽돌로 된 성전을 짓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을 뿐, 사람을 성전으로 일구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웅장한 건축물들은 도처에서 위용을 뽐내건만, 정작 그 속에 있어야 할 성전 된 사람들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일구느냐 아니냐는 엄청난 차이를 초래합니다. 자신을 성전으로 세워 가는 자는 분명코 섬김과 봉사의 종이 되어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일구는, 수많은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비양심의 세계에서 양심의 세계로 불러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목상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부흥을 현대교회에서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원동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①말씀의 왕성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가 얼마나 급속하게 부흥하고 성장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어디에

도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성장을 어떻게 표현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왕성", "말씀의 흥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행 6:7)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행 12:24)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행 19:20)

②기도의 불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부흥의 진원지는 마가의 다락방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의 승천 후 120명에 이르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드린 곳이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드렸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여 방언을 하고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행 1:14)

③성령의 바람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했으며, 복음이 어떤 경로로 세상 만민에게 전파되었는지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부흥과 복음 전파의 배후에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권능을 얻어서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31에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는 말씀에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요한 특성은 바로 '바람'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바로 바람 같

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강림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2에는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이 바람같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은 놀라운 폭발력과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이나 들에 불이 났을 때 강한 바람이 동반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은 견잡을 수 없는 속도로 사방으로 번져가서 나무나 풀을 순식간에 태워버리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은 이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쳤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5. 교회의 중요한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행 2:42)

→[참고] 본문은 얼핏 보면 4가지(가르침, 교제, 떡을 떼, 기도)로 나누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교제 다음에 언급된 '떡을 떼며'와 '기도'는 교제 안에 포함된 것으로써 원어에는 접속사 '그리고'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떡을 떼며 기도하는 교제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떡을 떼며'와 '기도'는 교제에 녹아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르침

원문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에서 '사도'는 복수형이지만 '가르침'은 단수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은 통일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예수님을 중심에 둔 말씀과 행하신 일들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성도는 말씀에 대한 평생 학습과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배웁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는 그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20년에 익힐 지혜를 한 순간에 깨우칩니다." 또한 겸손함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행 17:11)

①삼일교회 - GBS(Group Bible Study), 삼일바이블칼리지(Samil Bible College), 설교

②개인 - 독서, QT, 성경읽기, 온라인성경강의동영상

③그룹 - 성경공부, 제자훈련, 사경회, 수련회

◆교제

교제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귀는 것으로, 교제로 번역된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koinonia)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교통, 친밀한 연합, 상호 공유함, 참여적인 관계’라는 의미를 드러내 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교제는 상호 간의 사랑과 돌봄으로 일상 음식과 함께 필요한 물건을 서로 제공하고 나누어 주는 실천적 교제였습니다. 따라서 바른 교제는 ‘내 것’을 앞세우지 않고 상대의 피로를 먼저 채워주고 용납하며 받아주는 것으로써 자신의 것을 지체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사역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전화나 문자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 격려와 위로로 용기를 북돋아 줄 이가 누구인지, 몸이 아픈 지체가 누구인지, 밥을 함께 먹으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지체가 누구인지 알고 사역자의 의식과 자세로 도움을 주는 것이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갈 5:13)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롬 12:10)

신앙이란 바른 교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타는 석탄은 결코 뜨거워질 수 없듯이 ‘홀로’가 아닌 ‘더불어’의 교제가 있어야 믿음의 성장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제를 통해 우리는 함께 웃고 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가 늘 즐겁고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갈등이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할 수 있는 한 참아주고 품어주며 먼저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갈등을 겪을 때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비판과 정죄의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예화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한 삶이 부엌가락을 집어 들고는 난로에서 빨강게 달아오른 석탄 한 덩어리를 건져 냈다. 조금 있으니까 그렇게 밝고 환하게 타오르던 석탄이 차갑고 검은 재 덩어리로 변했다. 그는 그것을 다시 집어 들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다른 석탄 덩어리 속에 넣었다. 몇 초도 되지 않아서 그것은 다시 타올랐다.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들과 결속되지 않는다면 그 생활은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역기능적인 것이 되고 만다.

◆떡을 떼

떡을 떼는 것(애찬성찬) - 이것은 단순한 음식을 나누는 것 뿐 아니라 유월절에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었던 만찬을 상기시키면서 그 분의 사역(특히,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눅 22:19; 24:30; 행 20:7,11).

떡을 떼는다는 것은 큰 떡 하나를 떼어서 나누어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에 우리가 한 떡으로부터 떡을 떼어서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주의 성찬과 애찬을 하는 가운데, 떡을 떼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함께 고대하며 기억했습니다.

◆기도

초대 교회 성도들은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 4:2).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엡 6:18).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낙심은 물러가고,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할 때 미움은 사라지고,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영혼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사귀게 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대화입니다. 이 말은 기도란 단지 어떤 소원이나 바람을 이루는 정도의 기복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무릎으로 일하기보다는 머리로 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삼질이고 기도는 포클레인(Poclain)입니다. 하루 세 번 이를 닦기 위해서는 총 10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적은 시간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영적상태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각자 개인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스스로 답변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을 때면 언제나 주님의 인도를 구해왔는가?”

적용

현재 당신은 교회 안의 교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까?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교제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유익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과 충분한 사귀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디이트리히 본회퍼’의 [신도의 공동생활]中

"그리스도인이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본회퍼는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와 형제 모두 사랑하셨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사람들의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사람의 자연적인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사랑은 그리스도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까닭에 원수를 형제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도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본질입니다.

은혜공감 그 은혜는 넓고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한 역사로 부흥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부흥을 감당할 만큼 내적으로도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면 내 신앙도 덩달아 좋아지리라는 기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성장으로 내가 속한 교회공동체도 함께 성장하리라는 교회를 향한 건강한 비전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기도의 힘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섬김의 교제를 만들며 선교에 힘쓰는 건강한 성도가 된다면,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를 이 시대에서도 분명히 경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5-8)

[참고] 3과 기도 예문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인생을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시간을 통해 성도가 함께 연대해 가는 것이 교회임을 다시한 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평생 선교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초대교회에 부어주신 부흥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가르침, 교제, 떡을 떼며 기도하는 삶을 통해 기쁨과 감격이 늘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바르게 갖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예배! 그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이다. 그것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은 마음에서 행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양심을 일깨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로 생각을 키우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심상을 깨끗케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지를 헌신하는 것이다. -윌리엄 템플-

생각나눔 자신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1. 당신이 지금까지 드려본 예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지 예배를 통한 은혜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2. 예배의 본질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뜻하는 영어단어를 통해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Worship : 예배라는 단어인 Worship은 Worth(가치) - ship(명사에 붙여 상태, 신분 등을 나타냄)이라는 복합어로 '어떤 분이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worship은 상대방에 대해 존경을 표시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 분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Service : 봉사와 섬김의 단어 Service의 어원은 slave(노예)입니다.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는 '종'이라는 자기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계급사회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종과 주인의 연합한 사이로, 특권과 영광의 관계를 말합니다. 다윗 역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했습니다. 비하시킨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순복, 밀착되어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럼으로 예배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본문말씀: 요한복음 4:20-24

신약성경(개역)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총 10개의 절에서 15번 사용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5개의 절에서 10번이나 “예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만큼 수적인 비중도 있지만 보다 더욱 본문이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배’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마리아’라는 땅의 역사적 배경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마리아(그리심 산) VS 유대(예루살렘)

요한복음 4:5에 나오는 수가라 하는 동네 위치는 그리심 산 바로 오른쪽 위에 있어요.

수가 동네에서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 동쪽 지역으로 여행했습니다.

[참고] 사마리아

사마리아 지역은 팔레스타인 중앙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로마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간 후부터 북쪽의 갈릴리, 남쪽의 유대 땅 사이의 지역을 가리키는 지방명이 되었습니다. BC 722년 앗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앗수르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를 당시 앗수르의 지배하에 있던 여러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이주한 이민족과 잔류 유대인과의 혼혈에 의해 생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러한 혼혈과 이교와의 혼합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심한 배척을 받았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참가하는 것을 거부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연유로 유대인들과 사마

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니다. 당시 남쪽 유대지역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 정도 소외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6일 정도 걸리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올라갈 정도로 무척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하는 예수님께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런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요 4:9)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해 : 사마리아 여인은 음란하고 부도덕했을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과연 도덕적으로 자유분방한 여인의 이야기일까요? 일부는 이 여인을 여성 해방적인 주도권을 가진 여인으로 보기까지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녀가 다섯 번 결혼한 여인이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동거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복잡한 혼인 관계와 동거는 오늘날 이혼율이 최고로 높은 미국 사회에서조차도 드뭅니다. 아무리 자유분방한 사회라 할지라도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의 시각입니다.

첫째, 그녀가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이라는 사실이 성립되려면 먼저 그녀가 이혼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야만 하지만, 당시 철두철미하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이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문화에서 여성에게는 이혼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엇비슷한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선 시대는 소박당하는 여인은 있어도 남편을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던 사회였지요. 고대 유대 문화에서 여성은 남자와 같은 이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동물보다 나은 재산으로 취급당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대체로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처럼 취급당했고 그녀는 보호자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상상입니다만 그녀의 모든 남편이 그녀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 계속 과부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계대 결혼의 경우 그러합니다. 계대 결혼이란 자녀 없이 죽은 자기 형제의 대를 이어 주기 위해 친형제나 친척 중 하나가 그의 부인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 주는 풍습을 말합니다(막 10:2~12; 고전 7:15~16). 물론 남편 다섯이 모두 죽은 계대 결혼이란 매우 비현실적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 그녀가 무척 장수했어야만 합니다. 본문은 그녀의 나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젊은 여인인지 노년의 여인인지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노년의 남자들은 젊은 과부를 쉽게 첩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과부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폭이 좁았기 때문에 그녀가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매춘하든지 혹은 나이 많은 사람의 부인이나 첩으로 사는 것은 허다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과도하게 짧았던 당시에 과부들은 많았고 여러 번의 재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문화인류학적인 연구는 당시 로마제국의 평균수명이 만으로 29세에서 31세 사이라 추정합니다. 이는 당시의 것으로 발견된 공동묘지의 수많은 묘비에 쓰인 생일과

사망일을 근거로 추정해 낸 나이입니다. 이는 병균의 존재조차 몰랐고 위생 개념이 약했으며 의학이 원시적이었고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안 좋은 탓이었답니다.

혹시 그녀는 음란한 창녀 같은 여자가 아니라 피해자는 아니었을까요? 신명기 24장 1절은 부인에게 '수치 되는 일'을 발견할 때 이혼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물론 본문에 명시된 것과 같이 이는 남자들의 권리였지요. 예수 당시 유대인들의 이혼율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사마리아 사회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수치 되는 일'에 관한 해석은 다양했습니다. 유대인의 경우 보수적인 삼마이학파는 오직 간통의 경우만 이혼을 허락했지만, 더욱 급진적인 힐렐학파는 거리에서 춤을 추거나 외간 남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저녁 식사를 망친 경우, 개한테 물린 상처가 회복되지 못했을 때, 더욱 매력적인 여인을 만난 경우도(아마 아내의 부족함이 원인이라 생각되어) '수치 되는 일'로 간주하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대 유대 문헌이나 사마리아 문헌에서 여성의 이혼 권리를 논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권력과 경제력을 지닌 남성들에게 여러 여자를 거느릴 권리로 일부다처제라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던 남성들을 위해서도 이혼 권리를 통해 부인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법이 지지해 주었지요.

그렇다면 5명의 남편 모두 그녀에게서 이혼의 이유가 되는 '수치스러운 부분'을 발견한 것은 아닐까요? 전 남편들은 그녀보다 더 젊고 매력적인 여인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더는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매력적이지 않거나, 즉 그들의 욕망을 위해 부적당하다고 여겨 그녀를 버리는 일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서슴지 않게 행한 것은 아닐까요? 당시 사회는 법적으로 남자의 편에서 남자를 보호하고, 부인된 여성을 학대하고 버리는 것을 가능하게 했답니다. 그녀는 결혼의 실패, 여성에 대한 사회 경제적 압제, 빈곤의 희생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녀가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증거 역시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녀를 음탕한 창녀 같은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둘째, 우물물을 길어 간 시간을 놓고 그녀가 소외당하던 부정한 여인이었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녀는 제6시에 물을 길러 나왔다고 했는데 이를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 정오입니다. 로마 시간 법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이고 유대 시간은 낮을 열두 시간으로, 밤을 4경(1경은 약 3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로마제국이 통일된 시간을 사용하기 전에 나라마다 고유한 시간 법이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인 이 시간에는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자신의 부도덕한 과거와 삶으로 말미암아 남들의 눈을 피해 그 시간에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시간이 로마 시각이 아니라 유대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일 요한복음의 시간이 그냥 평범한 로마 시각이라면 그녀는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물 길러 오는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들의 눈을 피해 정오에 물을 길러 왔다고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의 그녀에 대한 시선은 정당한가요? 이미 가부장적 사회에서 고

통 받는 그녀를 두 번 죽이는 사람들의 시선은 옳다고 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녀는 이야기 속에 끝까지 무명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그녀를 그냥 사마리아 여인으로만 기억합니다. 사마리아라는 표현은 유대인의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 혹은 유대인의 원수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계속 생리 중에 있는 여자'로 낙인찍었을 것입니다 (m.Nid 4:1). 이 말은 율법에 따라 영원히 불경하고 더러운, 가까이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공동체에 받아들일 수 없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를 대하는 예수님과 상반된 태도입니다. 물론 그녀가 성녀였다거나 의인의 삶을 살지는 않았다 해도 근거 없이 그녀를 부도덕한 여자로 만드는 것은 참으로 생사람 잡는 일이지요.

그럼 예수님은 왜 영생의 물인 생수를 구하는 그녀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모리스(Morris)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신 말씀이 여인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Morris, John, 234). 그러나 예수는 그녀를 꾸짖으신 적이 없고 죄에 대한 인정이나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실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신 것입니다. 이는 매우 상담학적인 접근입니다. 그녀가 살기 위해 의지했던 것, 그것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매번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느 남자에게도 그녀가 원했던 안정되고 지속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제 그녀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자신이 영생의 생수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생을 교리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요한 문헌에서 영생은 참사랑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을 미래에 얻을 것으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요 5:28-29; 6:27; 12:25)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현재 실현될 수 있는 삶으로 소개합니다(요 5:24).

죽음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사망을 겪습니다. 실제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을 보면 삶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죽음보다 더 삶을 힘들게 하는 고독과 삶의 불안함을 견디지 못해서, 아니 이미 죽음보다 더한 상태에 처한 것이지요. 실제로 죽음보다 더 무서운 사망, 그것은 사랑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요일 3:14)."

만나는 남편마다 버림받은 그녀는 사실 사망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녀를 참된 생명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녀 삶의 희망은 남자들이 아닌 이제 예수님이 되는 것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필요했고 갈급하였던 생명과 삶의 안전은 남편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 즉 영생의 삶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안전은 불안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만이 참사랑, 불멸하는 행복을 보장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부도덕한 여성으로 보는 것은 근거 없는 선입관으로 현대적 시각을 당시 문화에 투영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여성학자인 슈나이더스(Sandra M. Schneiders)는 그녀를 음탕한 여자로 보는 것이 성경이 아닌 가부장제도에 맹종하는 것으로 여성들을 그들의 성(性)에 가두어 놓고, 그리고 그들의 성 자체를 비도덕으로 치부하는 것이라 보았습니다("Women in the Fourth Gospel and the Role of Women in the Contemporary Church." Biblical Theological Bulletin 12, 1982, 35-45). 그녀가 음탕하고 부정한 여자라는 증거는 본문에 없습니다. 본문은 그녀를 성적 죄의 포로로 산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꾸짖거나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5번이나 결혼하고 또 지금은 동거까지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본문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는 이혼할 결정권이 없었고 동거한 것조차도 그녀가 원해서라기보다는 그녀와 함께 사는 동거남의 결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녀는 오히려 남성 중심의 사회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예배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2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는 이 산이란 어떤 산이며,
왜 사마리아들은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요 4:20)

①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사?

사마리아 여인은 물 길러 나왔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인간과 사물을 꿰뚫어보는 선지자라 생각하여 종교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인은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립하고 있던 ‘예배 장소’라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②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린 산은?

‘이 산’이란 수가 성 남쪽에 위치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을 말합니다. 이 산은 솔로몬의 사후,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래 북 이스라엘의 후예인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남쪽에 속한 유대인들은 변함없이 남쪽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남북 간 제사의 중심지가 다르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는 과연 어느 곳에서 드리는 제사가 유효한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서는 어느 곳에 계시는가?”라는 질문이 대두되었고, 사마리아 여인 역시 이에 대해 예수님께 여쭙었던 것입니다.

[참고] 그리심 산

그리심 산이 위치한 땅은 야곱 소유의 재산이었습니다(창 33:19). 야곱은 그 후에 이 땅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특별한 기업으로 주었습니다(수 24:32).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에 들어가려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그리심 산에서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은 이것에 관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신명기 27장 12절에 의하면 여섯 지파가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심 산이 야곱이 모세에게 준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산이었음을 가리킵니다. 비록 그리심 산이 중요성에서 시내산과 동등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련된 축복이 그리심 산에서 선포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선포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한 그리심 산을 중요성에서 유일하게 만들었습니다.

③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주전 539년에 성전을 약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삼았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근동세계의 새로운 제국 바사(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에스라 1장을 보면 70여 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지시로 인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은 그의 새로운 종교정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포로에서 풀려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이러한 성전 재건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권력과 영향력, 그리고 이익의 이해득실을 따져 성전 건축에 참여하여 지분을 나누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혼합해진 사마리아인들이 거룩한 성전 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을 이방인 취급 하는 유대인들에게 원한을 품고 바사(페르시아)국의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 하였습니다. 그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는 거의 14년 가까이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의 내용을 수정해서 사마리아(모세) 오경으로 바꾸고 자신들은 예루살렘 대신 그리심 산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을 첨가했습니다. 그리심 산에 성전을 짓고 그 곳을 예배 장소로 선포했습니다. 사실 그리심 산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으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을 그들의 조상들이 예배드렸던 거룩한 곳이라고 고집했고, 그리심 산만이 축복된 장소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장소라고 주장을 펼쳤던 것입니다.

2. 예배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에 대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 4:21)

예수님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동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을 유일한 예배장소라고 믿어왔습니다. 이에 반해 사마리아인들은 이러한 입장을 거부하고 그리심 산에 성전을 세우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심

산이나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목상

21절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란 어느 때를 의미할까요?
예배의 주체이자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머지않아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약적 예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예배는 어떤 장소의 제재를 받는 외부적 예배가 아니고,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با 아버지로 부르며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 4:6)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당히 불경한 죄에 속합니다(요5:17~18).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심판하시는 엄중한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을 통해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예배의 주체이자 주인공은 누구?

어떠한 예배든지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예배를 드리는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예배'입니다.

요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예배를 '돕거나', '드리는' 사람에게 너무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중요해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도 사람, 사람 중에서도 택함 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격을 선물로 받은 것만 해도 엄청난 영광인데, 사람이 예배의 주인공까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안 될 말입니다.

또한, 교인들이 설교에 많은 비중을 둔다고 해서 설교 듣는 것만 예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 예배가 무슨 행사나 세상의 잔치처럼 진행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 성장에 효과적이고 교인들의 종교적 만족감을 채워준다 할지라도 예배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참고] 예배하는 자의 개인적인 적용

- ①지각하지 않기(차량 주차 시간 고려) ②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기 ③잡담하지 않기
- ④휴대폰 문자 보내지 않기 ⑤다리 꼬고 앉지 않기 ⑥졸지 않기
- ⑦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지 않기

[참고] 유머

어느 교회의 목사님께서 부모님을 보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배 때마다 맨 앞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겁니다. 보기에 안 좋고 교인들에게도 민망하여 고민을 하다 마침내 묘안을 생각해 냈습니다. 목사님은 자기의 어린 아들에게 부탁하기를, “얘야 너는 예배드릴 때 꼭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할아버지가 조시면 쿡쿡 찔러서 깨워드려라. 그러면 아빠가 천원을 주마.” 드디어 주일이 되었습니다. 천원의 위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은 할아버지가 졸 때마다 열심히 깨워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목사님은 기특해서 아들에게 잘했다며 천원을 주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졸고 있는데도 손자가 깨우지 않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자 목사님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 너 왜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았니?” “아빠, 사실은요. 할아버지가 안 깨우면 이천원 준다고 하셨어요!”

3.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요 4:22)

예수님께서서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과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 역설하십니다. 여기서 ‘너희’와 ‘우리’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너희’는 사마리아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분이시고 결국 유대인 편에 서시는 분이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보면 유대인은 대체적으로 부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곳곳에서 긍정적인 의미로써, 다시 말하면 참다운 유대인이 누구인가를 뜻하는 의미에서 ‘유대인’이란 단어를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으로 ‘너희’란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하여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속성과 성품을 바르게 알고서야 아버지께 바른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고도 깊게 알아가는 방법은 오직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도 바로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배는 관계에서 출발하며 관계의 성장은 기대와 흥분이 동반된 그리스도인의 여정입니다.

4.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찾으십니까?(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

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3)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 프로그램이나 형식, 테크닉, 환경 등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개역한글판에서는 ‘영과 진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그리스어로 보면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뜻이 됩니다. 즉 예배는 환경적인 요소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1) 진리 안에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개역 성경에는 “진정으로”) 드러지는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에는 ‘진리’라는 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참’이라는 뜻으로 ‘거짓’의 반대말로도 쓰이고, ‘실체’라는 뜻으로 ‘그림자’의 반대말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주로 ‘그림자’의 반대말로 쓰입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진리란 “이전에 모형적으로 있었던 것이 이제 실체로 오게 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란 과거에 드렸던 모형적 예배가 아닌! “실체로서의 예배”, “성취로서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너희는 더 이상 구약의 그림자 예배가 아닌,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인데 곧 지금이다.” 바로 주님께서 예배의 주체이시다....라는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갑니다. 실체로서의 예배! 주님께서 예배의 참된 수종자가 되시는 모형의 완성으로서의 예배!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참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 역시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제 책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만, “성령 안에서” 드러지는 예배란 24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24절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에 두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 안에서, 즉 영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의 예배’는 ‘육의 예배’의 반대말이 됩니다.

영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이 쪽 ‘영’에 대해서 써온 내용을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계속 육과 영의 내용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육은 ‘땅에 속한 것’, ‘거듭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은 ‘하늘에 속한 것’,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예배란 세상 사람들의 종교심에서 나온 ‘땅의 예배’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설명할 때 ‘형식에 치우쳐 있는 로마교회의 예배’를 반대했습니다.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의 성품에 맞는 것에 탐닉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피상적인 의식으로 가득찬 것을 여러 가지 발상해 낸다. 우리는 물이 불과 상종하지 않는 것처럼 육신과 도저히 통할 수 없는 하나님과 상대하고 있음을 우선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싫어하시고 지루해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의 방탕을 억제하는데 족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란 일차적으로 ‘구약예배’의 반대를 의미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육의 예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예배이지만, 실상은 실체의 예배가 아닌 것.....이것이 육적인 예배이고, 그 반대되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현대의 예배를 보면 어떻습니까? 현대의 예배야 말로 진정으로 ‘육의 예배’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배가 온통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와 정반대의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육의 것과 정반대의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점을 기억하고 우리의 육이 기뻐하는 예배를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제임스 E. 화이트의 <하나님과 친밀한 사귄 中>

천사의 안내를 받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당에 가보니 좌석이 꽉 차 있었는데, 그 예배에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르간 반주자가 열심히 손을 놀려 연주를 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성가대가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데 역시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목사님이 강당으로 걸어가 성경을 낭독하며 설교를 했고, 도중에 이런 저런 점들을 강조하느라 다양한 몸짓을 했지만, 천사를 따라 그 곳에 간 사람은 책장 넘기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몸을 돌려 천사를 바라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지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배가 진행 중인 것은 알겠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으니 말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들을 만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이 예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다. 마음을 다해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나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창세기4:2-5)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 4:2-5)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는 곡식제사보다 짐승제사가 더 가치 있다고 여긴다는 관점에서 아벨은 양 치는 자로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에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보면 곡식으로만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것은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은 가인이 소출을 얻자마자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는 않았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반면에 4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라는 말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가장 좋고 가장 싱싱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약한 것을 드리면 안 된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싱그러운 것을 드려야 합니다.

②예배자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순서를 보면, 4절 ‘아벨과 그 제물’, 5절 ‘가인과 그의 제물’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 그 자체보다 제물을 드리는 자의 삶을 먼저 살핍니다. 이는 사람 자체를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인격이 중요합니다. 가인의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이 문제가 있었음을 5, 7절에서 암시합니다.

5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7절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의 삶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허랑방탕(개판)하게 살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예배는 삶의 흔적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의 질을 좌우합니다. 예배는 예배만 딱 잘라놓고 볼 수 없습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한 주간 죄를 범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다. 이 제물이라고 번역된 “민하”는 레위기에서는 주로 “소제”로 번역되었다. 사무엘상 2장 17절과 26장 19절에서는 짐승의 제사를 포함시키기도 하나, 주로 “곡식제물”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여호와께 드렸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열납하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열납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략 다섯 가지의 견해가 있다. 첫번째는, 하나님이 농부보다는 목자를 더 좋아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데 이 주장은 2장 15절에 보면 그 근거가 없다(궁켈). 두번째는, 곡식제사보다는 짐승제사가 더 받아들여지며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견해이다(스키너, 야곱). 그러나 율법(예, 레위기 2장)에서는 분명히 곡식제사도 요구된다. 세번째는 하나님의 동기는 신비스럽다는 견해로 선택적인 섭리로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폰라드, 바터, 골카, 웨스트만). 네번째는, 구약을 해설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석하는 것과 같이 예배자의 동기와 중심에 따라서 받아들였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칼빈, 딜만, 드라이브). 마지막으로 가인은 단순히 “땅의 소산을 드렸지만”, 아벨은 “첫 것들”을 선별해서 드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즉 초점은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이라는 견해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의 제사가 아벨과 같이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그 중심과 제사 드리는 동기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지 않자, 가인의 태도는 낙심으로 변했다.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표현 역시 정확하지 않은데, 그 이유로 “들다”(나사)라는 동사와 연결되는 단어가 실제로 원문에서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의미를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먼저 “들다”와 생략된 연결된 단어를 “하타트”(죄)로 생각할 경우, “만약 네가 선을 행하면, 네 죄에 대한 용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른 가능성은 “얼굴”(파님)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해석은 “만약 네가 선을 행하면, 네 얼굴을 들 수 있다”라는 해석이다. 마지막의 견해는 “들다”(세에트)라는 단어를 “샤안타”(편안하게 하다)로 바꾸어 해석하는 것인데, 이 경우는 “네가 선을 행하면, 편안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단어를 추가한 것이고 직역하면, “네가 잘한다면 들지 못하겠는가?”라고 직역할 수 있다.

5. 영과 진리로 예배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를 의미할까요?

➔영적인 예배 (로마서 12:1) :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은 성도들의 삶의 대원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란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드리는 제사, 즉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의식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몸을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악한 것을 보지 않을 때 그것이 제사가 되고, 우리의 혀가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이 제물이 되며, 우리의 손이 불법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이 온전한 번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구제를 행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귀로 성경 말씀 듣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산 제사입니다.

성도는 두 가지 종류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한 날, 정한 장소에서 예배 공동체로 모여 드리는 예배와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비결은 이 세대와 타협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는 데 있습니다(롬 12:2).

➔진리의 예배 (호세아 6:6) :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진리의 예배란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예배입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과 살인을 저질러 사회가 문란해졌습니다.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자신의 사욕을 취하는 데 혈안이 된 정치가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무질서와 쿠데타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인애가 없어진 것이 백성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예배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인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애는 불변의 사랑, 악한 자들에 대한 최선의 돌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섬김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바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묵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이 발견한 제사의 비밀은 무엇이며,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시51: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 51:17)

시편 51편은 일곱 개의 참회시들(6, 32, 38, 51, 102, 130)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주님의 임재를 간구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아래 있을 때에야 영적 기쁨과 확신 그리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권위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때에 행할 일을 서원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어’ (14절)라는 표현은 탄원자가 극도의 곤경에 처해 있으며, 곤경에서 건져 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절박한 부르짖음입니다. 다윗은 ‘피 흘린 죄’ 곧 살인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의 의’ (14절)는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형식적인 제사 곧 마음을 드리지 않은 의식적인 제사가 죄 용서를 가져올 수 없음을 알았기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17절)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시편 51:17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당시 수많은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제사는 단수로 되어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상한 마음이 없는 제사, 그것은 아무리 많이 드려도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는 상한 심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서진 마음(broken heart), 가난한 마음,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반석을 쳐서 부수는 강한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부서진 우리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6.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예배의 유익

1.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계 7:10-12).
2. 예배자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
- ①예배시간에 죄 사함을 얻게 해 주신다(히 10:19-22, 요일 1:9).
- ②예배시간에 위로를 주신다(고후 1:3-4).
- ③예배시간에 평안을 주신다(시 119:165, 요 14:27).
4. 예배시간에 치유(치료)해 주신다(말 4:2, 출 15:26).
5. 예배시간에 응답해주신다(렘 33:3, 마 7:7).
6. 예배시간에 힘(能力)을 주신다(사 40:31).
7. 예배시간에 기쁨을 주신다(시 4:5-7).

적용

당신이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은혜공감 그 은혜는 넓고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이 우주에는 두 가지 위대한 열정이 있다.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정과 만족케 되려는 인간의 열정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동시에 만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존 파이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6-8

다음은 쉬운성경 (미가 6:6-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 ①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 ②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께 나아갈까?
- ③여호와께서 천 마리 **양**을 기뻐하실까?
- ④강줄기 만 개를 채울 만한 **기름**을 기뻐하실까?
- ⑤내 허물을 벗기 위해 내 **만아들**이라도 바칠까?
- ⑥내 죄를 씻기 위해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바칠까?

사람아, 그분이 네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인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참고] 4과 기도 예문

“하나님! 저희 각자를 삼일교회로 인도하시고 새가족 교육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은 적전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

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신앙의 형식이나 외형보다는 영과 진리의 믿음을 추구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삶의 전 영역에서 예배하는 자로 바르게 서 있도록 저희들을 더욱 빔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